

# KIA 최형우, 역대 12번째 2000안타 달성 '초읽기'

12일까지 1993 안타 기록 2002년 데뷔 19년 만의 쾌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38·사진)가 KBO리그 역대 12번째 2000안타 달성을 앞두고 있다.

최형우는 12일 현재까지 1993 안타를 기록해 2000번째 안타에 7개만 남겨두고 있다.

2002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데뷔한 최형우는 데뷔 후 두 번째 경기였던 2002년 10월 18일 사직 롯데전에서 첫 안타를 2루타로 장식했다.

이후 13년 만인 2015년 6월 3일 포항 롯데전에서 통산 1000안타를 기록한 후 꾸준한 안타를 추가해 통산 2000안타를 바라보고 있다.

최형우의 2000안타 대기록은 2008년부

터 13시즌 연속 100안타 이상을 기록한 꾸준함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2016년에는 한 시즌 개인 최고인 195안타를 기록하며 KBO리그 안타 부문 1위에 올랐고, 지난해에도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며 185안타 기록과 함께 0.354의 타율로 타율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올해 7개의 안타를 친 최형우는 이번 시즌 51개 이상의 안타를 기록할 경우, 이병규(전 LG)의 2043개를 제치고 KBO 통산 최다안타 순위 10위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다.

KBO는 최형우가 2000안타를 달성할 경우 표창 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뉴스스



## 손흥민 향한 인종차별, 글로벌 SNS 기업도 예의주시

CNN, SNS 인종차별 건 소개 토트넘 구단 "보이콧 검토 중"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이 축구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차별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CNN은 13일(한국시간) 최근 손흥민을 향한 SNS상 인종차별 건을 자세히 소개하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업체들의 반응을 전했다.

손흥민은 1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의 경기에서 전반 33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손에 얼굴을 맞고 그라운드에서 쓰러졌다. 이어진 장면에서 맨유가 골을 넣었

지만 비디오판독(VAR)에 맷도미니가 오른손으로 손흥민의 얼굴을 가격한 장면이 잡히면서 골이 취소됐다.

이에 맨유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SNS를 찾아 강하게 비판했다. 인종차별 발언도 포함됐다.

토트넘 구단은 "우리 선수가 인종차별을 겪었다. 구단은 EPL 사무국과 조사에 나선 것이다"며 SNS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

CNN은 손흥민의 사례를 들어 "여러 SNS 플랫폼에서 축구선수들을 향한 인종차별이 확산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 레전드 티에리 앙리는 지난달 SNS 회사들을 향해 "인종차별을 막을 방법을 찾을 때까지 SNS를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또 스완지 시티, 레인저스FC가 같은 이유로 SNS 활동을 중단했다.

트위터는 CNN을 통해 "최근 사건 이후 조치를 취했으며 정책에 위반되는 많은 트윗을 삭제했다"며 "트위터에 인종차별의 여지는 없다. 팬과 선수가 모두 안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페이스북은 손흥민을 향한 차별에 "혐오스럽다"며 "우리 인스타그램에선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한 많은 글과 계정을 삭제했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협조하고 있다. 최근 다이렉트 메시지(DM)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DM을 받지 않는 기능을 포함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스

## '서복' 공유 "고민하게 하는 작품에 끌렸다"

배우 공유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전직 요원 민기현으로 돌아왔다. '복제인간'이라는 소재와 날카로운 주제 의식이 돋보이는 이용주 감독의 신작 '서복'을 통해서다.

살과 죽음, 세상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그는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서복과 동행하며 함께 성장한 모습이었다.

13일 화상으로 만난 공유는 "나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작품에 흥미를 느끼고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작품 선택 기준을 밝혔다.

이어 "시나리오를 볼 때 '잘 만들면 흥행이 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전혀 고민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자극적이고 가벼운, 재미 위주로 선사하는 시나리오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서복' 역시 장르적인 특징보다 메시지에 끌렸다. 2019년 '82년생 김지영'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그는 "시나리오를 볼 때부터 임세은(장영남) 박사가 민기현한테 특 하고 '사람들 참 겁 많죠'라고 이야기하는 대사가 마음에 들었다. 이 주제를 관통하는 한 줄의 대사라고 생각했다"며 "서복은 쉽지 않은 주제지만 잘 만들어졌을 때 관객들에게 고민거리를 던지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돌아봤다.

공유와 박보검의 첫 연기호흡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복제인간 '서복'(박보검)은 영원이라는

시한부 전직 요원 기현역 맡아 복제인간 박보검과 브로맨스 체중 감량·액션 등 찰떡 소화

시간에 갇힌 채 평생 실험실에서만 살아온 존재이고 '기현'(공유)은 죽음을 앞두고 생애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된 인물이다. 영화는 이처럼 공통점을 찾기 힘든 두 남자가 예기치 못한 동행을 시작하며 가까워지는 과정을 진한 브로맨스와 함께 담아낸다.

공유는 과거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해 괴로워하고, 죽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기현'의 예민하고 날선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는 등 외적인 변화도 감행했다. 전직 요원에 걸맞게 거친 액션도 소화하고 '서복'을 만나 변화하는 인물의 내면도 섬세하게 그렸다.

공유는 "4개월 정도 식단 조절을 했는데 기현의 예민함을 가져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며 "기현이 눈이 폭 꺼진 상태로 처음 등장하는데 캐릭터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면이다. 욕심이 나서 관객들이 놀랄 정도로 뻥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만류했다. 편집과정에서 죽음을 앞두고 끈두서있고 공격적인 기현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장면만 추렸다"고 떠올렸다.

시원하게 욕을 하는 장면과 관련해서

는 "3, 4번 정도 욕설이 등장하는데 따지고 보면 거의 처음이다. 데뷔 초기 '동갑내기 과외하기' 말고는 욕을 한 적이 없다. 어울리지 않게 착한 역할만 했나 생각이 들더라. 통쾌하고 자유로워서 더 즐거웠다"고 웃었다.

박보검은 '서복'으로 스크린 첫 주연에 도전한다. 앞서 공유는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 역에 대해 "이전에 없었던 캐릭터다. 영화 속에서 '서복'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연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자 후배랑 둘이서 영화를 끝이 간 적이 처음이었다"며 "보검 씨가 국내의 팬이 정말 많은데 특히 여성 팬분들이 둘의 조합을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한다.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복'은 15일 극장 개봉과 동시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티빙에서도 공개된다. 지난해 12월 개봉을 준비 중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고 국내 최초로 '극장-OTT' 동시 공개를 선택했다.

코로나19 시기에 개봉하는 기대작으로 부담감도 여보였다. 공유는 "이미 영화의 존재가 알려졌고 기대치가 높아진 것 같아서 걱정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점에 따라 호불호가 나눌 수 있고 다소 철학적이고 무거울 수 있는 주제다. 단지 바람이 있다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스



영화 '서복'의 한 장면

#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